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5. 5.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목 차

1. 오세아나, 영국 MPA에서 2만 시간 불법 저인망 어업 의심 사례 보고..... 3
2. 미 상원의원, 해양과 수산업 위협하는 온난화·플라스틱 오염 경고..... 4
3. PSMA 이행 위한 중국의 수산법 전면 개정 추진 동향..... 5
4. 美 해양보호구역 상업어업 재개방·환경단체들 '기념물법 위반 소송 제기' 6
5.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수산물 투명성 제고..... 7
6. EU, 미국산 수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고려..... 10

- 오세아나 UK는 2024년 영국 MPA에서 2만 시간의 저인망 어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며, 해양과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저인망 어업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MPA :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ion Area)

- 오세아나 UK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영국 해양보호구역에서 약 2만 시간의 저인망 어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영국 해양보호구역의 90%가 저인망 어업에 개방되어 있으며, 오세아나는 장기적으로 어업 산업을 위해서라도 저인망 어업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과거 라임 베이(Lyme Bay)에서 저인망 어업을 금지한 결과, 10년 만에 어획량이 370%, 생물다양성이 430%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
- 단기적으로 어업계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지만, 정부의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20년간 35억 파운드(약 4.7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됨
- 오세아나는 해양보호구역이 실제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영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SeafoodSource¹⁾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oceana-reports-20-000-hours-of-suspected-trawling-in-uk-mpas> ('25년 05월 26일 검색)

- 미 상원의원 셸던 화이트하우스는 기후 온난화와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과 수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미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해양이 엄청난 열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 온도 상승, 어장 붕괴, 산호초 백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음
 - 그는 부산에서 열린 Our Ocean 회의에 미국 정부 대표로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관련 예산과 국제 협력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음
 -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물과 인간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바다 속 플라스틱 무게가 어류 전체 무게를 앞지를 것이라고 지적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해양 보호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입법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SeafoodSource²⁾

²⁾<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us-senator-warns-of-warming-plastic-threats-to-world-s-oceans-and-fisheries> ('25년 05월 26일 검색)

- 중국은 2024년 4월 PSMA(입항국조치협정)를 비준한 이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어업법 전면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어업법의 대부분 조항을 다양한 수준에서 수정하는 대규모 개정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의 어업 산업이 PSMA의 이행 목표와 보다 부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3무(등록, 모니터링, 입항허가 미비) 선박'의 조업 및 유통 금지, 어항 디지털화 추진, 어업 보험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어구 사용 기준을 정비하고, 어획물 양륙 항만에 대한 '권장' 조항을 통해 유통 관리 체계화를 시도함.
 - 중국 농업부 수산국장 Liu Xinzhong은 본 개정안이 항만 관리와 부처 간 협력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국 수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 아울러 PSMA 가입은 중국의 IUU 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함.
 - 그러나 환경단체(예: 그린피스) 및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어획물 양륙 항만 관련 조항이 '권장'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며,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 선박 등록제와 실질적인 IUU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됨.
 - 선박 및 가공공장 내 노동 기준 강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공급망 추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또한 부족하다고 평가됨.

※ 출처: SeafoodSource³⁾

³⁾<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proposes-massive-overhaul-to-nationwide-fisheries-law>

4 美, 해양보호구역 상업어업 재개방...환경단체들 '기념물법 위반' 소송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이 태평양 제도 유산 해양국립기념물(Pacific Islands Heritage Marine National Monument)을 상업어업에 재개방하는 선언을 내리자, 환경단체들이 해당 조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음
 - 태평양 외곽 제도 해양국립기념물(PRIMNM)은 부시 대통령 시절 지정되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 40만 평방마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더욱 확장하고 국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임기 내 완료하지 못하고 퇴임 직전 PRIMNM 명칭을 '태평양 제도 유산 해양국립기념물'로 변경함.
 - 트럼프는 사실상 해당 보호정책을 무효화하고 태평양 제도 유산 해양국립기념물 내 상업어업 재허용 선언함
 - 웨이크섬 등 일부 구역 제외하고 50해리 밖 어업 가능하게 조치함
 - 환경단체 EarthJustice가 Conservation Council for Hawai'i, 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Kāpa'a를 대리하여 해당 선언이 기념물법(Antiquities Act) 위반이라며 하와이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함
 - NOAA Fisheries는 공청회 없이 불법적 지침을 발행해 트럼프 선언을 집행하였고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한것임을 주장함
 - 상업어업과 부수어획으로 인한 자원 낭비는 하와이 원주민의 가치와 생존을 위협하며
 - 해당 해양 생태계는 가장 원시적이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 중 하나로,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원고 측은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선언과 행정절차 위반을 중단시키고,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가치를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해줄 것을 요구함.

※ 출처: SeafoodSource⁴⁾

4)<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conservation-groups-sue-trump-administration-over-opening-of-pacific-national-monument-to-commercial-fishing>

- 블록체인 기술이 수산물 생산자로 하여금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NSC)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수산물 생산에 관한 세부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하며, 놀랍게도 89%의 소비자들이 수산물 선택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함. 이러한 수요는 전 세계 수산물 생산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함. 블록체인은 수산물 공급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바다에서 식탁까지 전례 없는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은 수산물 생산자가 제품 생산의 전체 과정과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수확과 소매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함. 이러한 향상된 추적성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
 - 정확한 출처: 수산물의 정확한 출처 확인이 가능함.
 - 규제 준수: 지속 가능성 기준 및 모든 관련 규정 준수를 입증함.
 - 전 과정의 투명성: 초기 수확 또는 양식부터 최종 판매 시점까지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가시성을 제공함.
- 소비자 신뢰를 글로벌 식품 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수산물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강력한 투자자 연합인 '공정한 수산물 추적성 참여연대'는 전 세계 주요 수산물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인 투명성을 옹호하고 있음.
- 'IBM 푸드 트러스트 및 프로버넌스'와 같은 선구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기술 변화의 선두에 서서 국제 수산물 시장에서 그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신흥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들은 전 과정에 관한 추적성

을 촉진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관행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개발했음.

■ 영구적인 디지털 기록을 통한 신뢰 구축

- 블록체인 플랫폼은 생산자의 수산물 전 과정을 기록하는 투명한 디지털 원장을 생성함. 단순히 원산지 추적을 넘어 업계의 협업을 위한 강력한 수단임. 이를 통해 양식업에서의 종자 품질, 물의 산소와 온도, 먹이 공급 프로토콜, 어류 건강 등 처음부터 가공, 운송, 최종 배송에 이르기까지 접근 가능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공유할 수 있음.
- 생산자는 공급망의 모든 측면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됨.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면 소비자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음.

■ 전례 없는 데이터 보안 및 일관성

- 블록체인 기술은 고유한 보안 기능과 표준화된 데이터 저장을 통해 기존의 추적 및 정보 수집과 차별화됨.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시간 스탬프가 찍히고 암호화되며 시간 순서대로 액세스할 수 있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변조가 방지됨. 이러한 일관성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수산물 제품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간소화하여 다양한 생산자, 파트너 및 유통업체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촉진함.

■ 증가하는 수요의 활용

- 블록체인은 기술, 정치, 경제, 환경, 인구통계학, 사회적 힘에 의해 향후 수십 년 동안 수산물 소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글로벌 변화를 분석하는 NSC의 연례보고서인 '메가트렌드의 세계 탐험'에서 탐구하는 핵심 주제임.

-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의 글로벌 소비자 행동 분석가 라스 목스네스는 신뢰와 브랜드 평판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강조함: "우리의 연구는 브랜드 평판이 소비자 신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진정성에 대한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하여 더 강력한 연결을 기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함."

출처: www.seafood.media⁵⁾

5)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4541&ndb=1> (5월 13일 기사)

-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EU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고 이 상품 목록에는 연어, 명태, 대구, 게 등 수산물도 포함되어 있음.
- 현재 공개 협의 절차를 위해 EU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목록에는 950억 유로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 제품들이 있음.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는 이전 미국 행정부와와의 무역 긴장 기간 동안 시행된 관세를 포함하여 이번 미국 행정부의 잠재적인 관세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알려져 있음. 이 EU 대응안은 약 110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임.
- Fishnew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산물 부문 상품 항목들은 광범위함. 여기에는 연어, 대구, 청어, 고등어, 갑각류, 연체동물, 극피동물, 해파리 등 다양한 종의 살아있는, 신선한, 냉장, 냉동, 훈제, 통조림, 건조 및 분쇄된 상품들이 포함됨. 이 수산물 상품들의 추정 총 가치는 약 5억 유로에 달함.
- 공개 협의 기간은 6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가 잠재적인 관세 대상 품목 목록을 확정하기 전 이해관계자들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이 잠재적인 관세는 빠르면 7월 8일에 시행될 수 있고, 미국 대통령이 특정 무역 조치와 관련하여 이전에 발표한 90일간 유예 조치를 고려한 것임. EU의 미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은 대서양을 오가는 수산물 무역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출처: www.seafood.media⁶⁾

6)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4559&ndb=1> (5월 15일 기사)